

與 ‘경악할 비리’ 폭로 역풍

# 하루도 안돼 “성급하고 경솔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별장파티’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인 17일 ‘폭로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악할 비리가 이 정도냐”, “폭로정치 아니냐”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되도록 말도 삼갔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외에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악할 비리’ 언급의 당사자인 김 원내대표는 “17일 우리당에서 발표가 있었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지난 14일 기자 질문에 답변서 제 표현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예고를 한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 한나라, 정동영 의장 등 3명 고발

한다면 전국적으로 공천 관련해 금품 제공사례가 수백 수천건이 고발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천 비리는 발본색원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직자들은 ‘별장파티’ 의혹에 대한 질문에 “나는 할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호남출신 조선 의원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며 “당이 자심하고 발표할 내용치고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증거나 증언 등을 확실히 확보해 관련자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히 했어야 했

는데 경솔했다”며 “폭로정치나 인신공격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당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별장파티 의혹 공개 이전에 우리당 내에서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과 관련, 한 조선 의원은 “사전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보안의식도 없는데 무슨 경악할 비리냐”며 대응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별장 파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여당의 지휘부가 공모해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서울시장의 정상적 업무추진을 방해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인봉 당 인권위원장은 “공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구체적 확인도 거치지 않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식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당사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중 국방장관 나란히  
윤광용(가운데) 국방장관과 처오강현(曹剛川·맨 오른쪽) 중국 국방부장이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의정행사에서 의정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희장父子 혐의 부인해도 기소”

검찰, 현대차 수사 최종 사법처리 대상 선별작업 착수

김재욱 인베스트먼트글로벌 고문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출발한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가 3주를 넘기면서 검찰이 최종 사법처리 대상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3주간 수사를 통해 현대차 계열사 및 본사가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했고 계열사의 부실 채권을 싸게 되사기 위해 로비를 벌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급주 중반 이후 정 회장 부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부인해도 기소”=검찰은 17일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희선 기아차 사장이 혐의를 부인해도 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해 최종 사법처리 수위가 주목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회장의 진술 태도에 따라 사법처리 방침이 달라진다는 질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혀 정 회장 부자가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한 증거·진술 등을 이미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채 기획관은 또 정 회장 부자가 혐의를 부인해도 이달 하순까지 수사를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정 회장 부자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다. 혐의 유무가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혐의 가상만 부분 규명됐음을 피력했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의 소환 시기와 관련해 “소환 일정이 확정 안됐다. 다만 17~19일 중국 방문 일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말해 20일 이후에 소환이 이뤄질 계획임을 암시했다.

특히 그는 부부나 부자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관례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 사건에 관련한 가장 적절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정 회장 부자 모두 사법처리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비리백화점”=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지난해 12월 현대차 그룹이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쓰고 있다는 그룹 내부 제보를 토대로 착실히 준비돼 왔다. 검찰은 3개월여 간 사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휴일 새벽을 틈탄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베이징 제2공항 착공식 참석을 위해 17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단서들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현대차 그룹의 범죄 사실은 크게 ▲비자금 조성·집행 ▲경영권 승계 비리 ▲부채 탕감 로비 등 세 가지이다.

현대차가 지지른 불법행위는 다양하지만 비자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이나 부채탕감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비자금 조성→부채 탕감·경영권 승계 자금 확보’라는 비리구조를 갖는다. 현대차 그룹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 이주는 사장이 7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경선하자” “못한다”

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결정 20여일째 표류

지방선거에 출마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속속 확정돼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이 후보자간 이견으로 20여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경선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 달 28일 조영택 후보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사임하고 다음날 광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부터다. 조 후보는 당시 경선은 생각지도 않고 전략공천을 염두에 뒀으나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장선거 준비를 해온 김 재균 전 북구청장은 전략공천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선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때 김동철·양형일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100% 시민여론조사’를 중재안으로 만들었으나 강기정·염동연 의원이 당원 참여형 경선을 주장, 두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이처럼 경선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국회의원들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양쪽 후보를 만나며 합의를 모색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차마 쪽에 숨어 중앙당의 전략공천만을 바란다면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는 18일까지 경선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중앙당에 대해서 시급히 경선일정을 잡을 것으로 요구하며 “비민주적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조 후보 측은 “조 후보는 열린우리당 후보로서 광주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왔지, 경선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며 “경선만이 선거에 있어서 절대선인 양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의 법칙을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4조 먹튀’ 여론 무마용

론스타 “1,000억 기부”...효과 미지수

미국계 투기펀드인 론스타가 기부금으로 1천억원을 내놓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근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겠다는 ‘국면 돌파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을 내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기부금도 외환은행 매각차익의 4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론스타의 1천억원 기부 계획과 관련해 “수사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수사방해용”이라며 오히려 비난을 쏟아냈다.

◇론스타 기부는 ‘예정된 수순’= 론스타가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은 이미 수차례 밝힌 내용을 한단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론스타는 지금까지도 국제세의 세금 추징에 대해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었고,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과 관련된 기부금을 통해 한국사회에 ‘보답’하겠다는

약속도 이미 했었다.

다만 기부금 액수인 1천억원과 7천250억원의 국내은행 유지 계획은 처음 밝힌 것으로, 이른바 ‘먹튀’ 논란에 따른 한국내 정서 악화를 감안해 정부측에 화해의 포스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효과는 미지수=론스타의 이번 서한이 ‘먹튀’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오히려 최근들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정’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도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수사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www.gomall.com

## "고인돌과 함께 하는 신사여왕"

2006. 4. 20 ~ 4. 23 화순 고인돌 문화관광축제

# 2006 Hwasun Cultural Festival

# 화순고인돌축제

구분	주최	주관	후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화순군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화순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화순군